
 금융위원회	<h1>보 도 자 료</h1>			 금융감독원
보도		2016.9.19.(월) 조간부터	배포	2016.9.18.
책 임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02-2100-2660)		담당자	박 보 라 사무관 (02-2100-2668)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 오 용 석(02-3145-6700)			김 진 옥 부국장 (02-3145-6702)

**제 목 : 국민재산늘리기 ISA 출시 6개월, 성과 및 향후계획**

## 1. ISA 출시 6개월 성과 (9.9일 기준)

- 1 **총가입계좌수 240만 계좌, 총잔고 2.8조원\***  
\* 출시 6개월차, 재형저축 총가입금액 1조1,687억원, 소잔펀드 총가입금액 1,123억원
- 2 **ISA 신규계좌 평균가입금액\*이 대폭 상승하는 등  
ISA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착되어 가는 중**  
\* 신규계좌 평균가입금액 : 출시 첫 주(3.18일 기준) 49만원 → 26주차 541만원
- 3 **서민형 ISA 가입 증가세가 뚜렷하여(7월중 1달간 늘어난 계좌 가운데  
95%가 서민형 ISA) 서민층의 ISA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 4 **소액계좌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1만원 이하 소액계좌, 19.8%p↓),  
실질적 자산관리 비중은 증가(10만원 초과 계좌비중, 12%p↑)**

## 2. 향후 계획

- ① **공시오류 문제를 대폭 수정**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품간 경쟁 유도** ※ 9월말 제2차 수익률 공시
- ② 세제혜택 확대노력, 차별화된 상품설계 유도 등을 통해 **국민재산 증식수단**으로서 수익성 제고 및 저변확대 노력
- ③ 판매프로세스 점검, 모니터링 강화, 불완전판매에 대한 엄중 조치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

※ 별첨 : 「국민재산늘리기 ISA 출시 6개월, 성과와 향후 계획」

## 국민재산늘리기 ISA 출시 6개월 성과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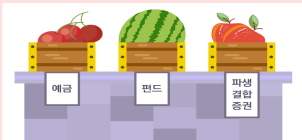

**2016. 9. 19**

금 융 위 원 회  
자 산 운 용 과

## I. 도입취지 및 경과

① (도입 취지)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을 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ISA를 도입·출시(3.14일)

-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ISA 계좌”에 담아 투자

기존의 상품별 투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상품별로 각각 다른 계좌로 투자관리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투자관리
	

② (주요 특징) 종합 자산관리 + 세제혜택 + 낮은 수수료

① (종합 자산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별 성향과 투자 목표를 반영한 다양한 모델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

⇒ 자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② (세제혜택) 비과세·저율분리과세 적용\* 및 순이익(수익-손실) 기준과세를 통한 세금부담 경감

\* 손익통산 과세, 가입자 소득수준별 200~250만원 비과세, 비과세한도 초과 순이익에 대한 저율분리 과세(15.4%→9.9%) 등

- 서민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른 세제혜택 차등화\* 설계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자(서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 → 250만원으로 확대, 의무가입기간 5년 → 3년으로 완화

⇒ 국민재산 증식 효과 확대

③ (낮은 수수료) 기존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적용 및 수수료 비교공시 등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 유도

\* 기존 유사 상품 대비 낮은 수수료 적용(A사 일반 투자일임상품 1.2%~1.6% → ISA 투자일임상품 0.2%~0.6%)

③ (ISA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보완) 금융회사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및 수익률 제고 유도

① 은행에 ISA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 허용 ('16.3월)

-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ISA한정)을 허용하여 은행과 증권 회사가 대등하게 경쟁함으로써 서비스 제고 및 투자자의 상품 선택 폭을 확대

※ 7.11일 기준, ISA 취급은행 총 14개 중 10개 은행에서 65개의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중(증권사 운용 MP는 128개)

② ISA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16.5월)

- 투자자들이 본인에 적합한 금융회사와 ISA 상품을 직접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수수료, 수익률 등 비교공시

- 금융회사의 경쟁적 환경 조성 및 차별화된 자산관리 유도

※ 신탁형 ISA 수수료 비교공시(5.31) → 일임형 ISA 1차 수수료·수익률 비교 공시(6.30) → ISA 2차 수익률 공시 예정(9월말)

③ ISA 계좌이전제 시행 ('16.7월)

-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 및 가입상품(신탁형, 일임형) 변경이 가능한 계좌이전제 시행

- ISA 상품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ISA 비교공시 시스템을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강화된 금융회사 및 상품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더욱 촉진

- 금융회사의 수익률 제고, 수수료 인하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편의 증진 도모 가능

## II. 현황 및 평가

### 1 계좌수 및 잔고

- ❖ ISA 출시 후 6개월이 경과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착 중
  - ① 가입계좌수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신규계좌의 평균가입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
  - ② 지속적인 추가 납입 등으로 전체 계좌의 평균가입금액도 꾸준히 증가

#### (1) 계좌수 및 잔고 : 240만 계좌, 2.8조원

- (현황) 9.9일 현재(출시 후 약 6개월 경과), 총가입계좌수는 240만 계좌 및 총잔고 2조 8,426억원\*

\* (여타 세제혜택 상품과의 비교) 출시 6개월차, 재형저축 총가입금액 1조1,687억원 (은행 재형저축 기준), 소장펀드 총가입금액 1,123억원

- 현재 총 14개 은행\*에서 ISA를 판매하고 있으며, 은행권의 총 가입계좌수는 217.3만좌(90.4%), 잔고는 2조 988억원(73.8%)

\* 10개사가 신탁·일임형 모두 취급, 4개사에서 신탁형 ISA만 취급

- ISA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총 19개사\*로, 증권사 총 가입 계좌수는 22.8만좌(9.5%), 잔고는 7,410억원(26.1%)

\* 15개사가 신탁·일임형 모두 취급, 일임형 ISA 또는 신탁형 ISA만 취급하는 회사는 각각 2개사(일임: 메리츠, 키움, 신탁: 신영, 하이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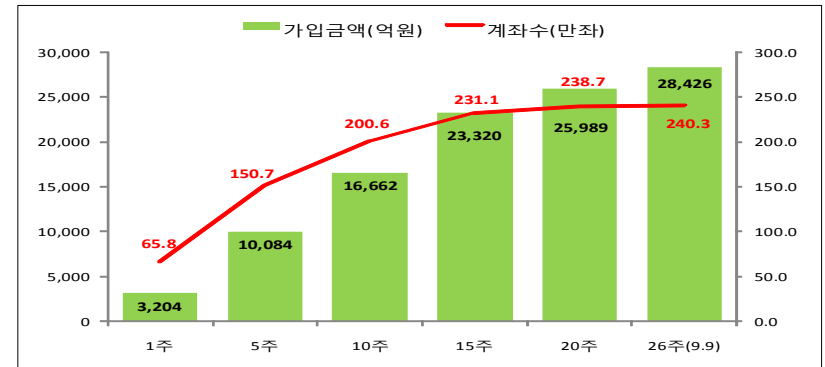
< 9.9일 현재 업권별/유형별 가입계좌수 및 잔고 (단위: 만좌, 억원, %) >

구분	신탁형		일임형		합계	
	계좌수	잔고	계좌수	잔고	계좌수	잔고
은행 (비중)	195.5 (91.3)	17,223 (70.9)	21.8 (83.8)	3,764 (91.4)	217.3 (90.4)	20,988 (73.8)
증권 (비중)	18.6 (8.7)	7,058 (29.0)	4.2 (16.2)	353 (8.6)	22.8 (9.5)	7,410 (26.1)
생보 (비중)	0.1 (0.0)	28 (0.1)	(미취급)		0.1 (0.0)	28 (0.1)
합계	214.2	24,309	26.1	4,117	240.3	28,426

- (변화 추이) 9.9일 현재(26주차)까지 누적 가입계좌수 및 가입 금액이 상승세이나, 7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

- 총계좌의 90%를 차지하는 은행들은 '16년 하반기 KPI 산정시 여타 상품과 ISA를 동일 취급하는 등 ISA 반영비중 축소
- ISA 가입자수가 20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고객선점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판단

< 누적 가입금액 및 가입계좌수 변화추이 >



<참고 : 다른 세제혜택 상품의 출시후 계좌수 추이>

- 출시 5개월차에 재형저축은 약 3천좌 감소, 소장펀드는 약 1만 5천좌가 감소하는 등 가입계좌수가 감소세
- 반면, ISA는 7월중(5개월차) 약 1만 7천좌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 유지

(단위 : 만좌)

구분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재형저축*	월별	144.5	28.4	7.7	2.5	- 0.3
	누적	144.5	172.9 (19.6% ↑)	180.6 (4.4% ↑)	183.1 (1.4% ↑)	182.8 (0.2% ↓)
소장펀드	월별	10.5	10.8	2.9	1.2	- 1.6
	누적	10.5	21.3 (101.7% ↑)	24.2 (13.9% ↑)	25.4 (4.9% ↑)	23.9 (6.1% ↓)
ISA	월별	120.4	57.1	36.3	22.9	1.7
	누적	120.4	177.5 (47.4% ↑)	213.8 (20.4% ↑)	236.8 (10.7% ↑)	238.5 (0.7% ↑)

\* 은행권 재형저축 기준

## (2) 평균 가입금액 : (계좌당) 118만원, (신규) 54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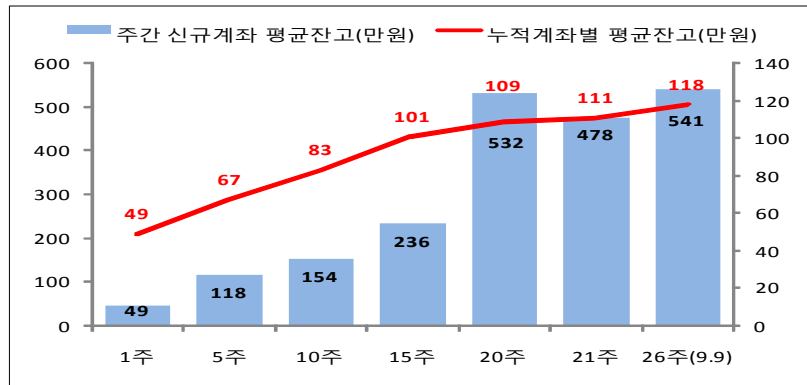
- (계좌당 평균가입금액) 3.18일 계좌당 평균가입금액이 49만원 수준이었으나, 신규가입 금액증가, 추가납입 등으로 9.9일 현재 총평균가입금액 118만원으로 급증 (141%↑)

\* (1주,3.18일) 49만원 → (10주,5.20일) 83만원 → (20주,7.29일) 109만원

- (신규 평균가입금액) 출시 18주 이후부터, 신규가입계좌의 평균가입금액이 대폭 상승하여 평균 500만원 수준에서 유지

\* 7.4일~9.9일(18주~26주차) 주간 신규가입계좌의 평균가입금액 515.5만원

<신규계좌 및 누적계좌별 평균잔고 변화추이>



## (3) 잔고 분포 : 소액계좌 비중↓, 자산관리 효과↑

- 7.15일 현재, 1만원 이하 계좌비중은 57.1%로 3월말(76.9%) 대비 19.8%p 감소하였으며, 10만원 초과 계좌 비중은 21.2%를 차지

➡ 추가납입, 신규계좌의 평균가입규모 증가 등으로 소액계좌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ISA가 국민 자산관리의 효율적 수단으로 정착

<업권별 ISA 가입자의 잔고 분포 변화>

(단위 : 만좌, %)

구분	3월말			7.15일		
	은행	증권	소계	은행	증권	소계
1만원 이하	89.3 (81.1)	3.2 (31.4)	92.5 (76.9)	127.2 (59.4)	8.6 (36.4)	135.8 (57.1)
1만원초과~10만원 이하	13.9 (12.6)	2.8 (27.3)	16.7 (13.8)	45.5 (21.2)	6.1 (26.0)	51.6 (21.7)
10만원초과~1천만원 이하	5.7 (5.2)	3.4 (33.2)	9.1 (7.5)	34.8 (16.3)	6.5 (27.4)	41.3 (17.4)
1천만원 초과	1.2 (1.1)	0.8 (8.1)	2.1 (1.7)	6.7 (3.1)	2.4 (10.2)	9.1 (3.8)
합계	110.2 (100)	10.1 (100)	120.3 (100)	214.2 (100)	23.6 (100)	237.8 (100)

## 2 유형별 분석

※ 8월말 기준 통계는 9월 하순 집계되므로 별도 배포예정 (9월말)

- (전체) 일반형 가입자가 70%(167.7만명)로 가장 많고, 서민형과 청년형이 각각 24%(57.5만명), 6%(13.2만명) 차지 (7월말 기준)

<가입유형별 ISA 가입 현황>

(단위 : 만좌, 억원, 만원, %)

구분	6월말			7월말		
	계좌수	총잔고	평균잔고	계좌수	총잔고	평균잔고
일반형	167.6 (70.8)	16,734 (68.1)	100	167.7 (70.3)	17,308 (66.5)	103
서민형 <sup>1)</sup>	55.9 (23.6)	6,974 (28.4)	125	57.5 (24.1)	7,772 (29.9)	135
청년형 <sup>2)</sup>	13.1 (5.5)	859 (5.3)	65	13.2 (5.5)	934 (3.6)	71
기타 <sup>3)</sup>	0.1 (0.0)	6 (0.0)	74	0.1 (0.0)	8 (0.0)	98
총계	236.8 (100.0)	24,573 (100)	104	238.5 (100.0)	26,022 (100.0)	109

1) (서민형)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 일반형 대비 비과세한도가 높고(200→250만원) 의무가입기간이 짧음(5→3년)

2) (청년형)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농어민을 대상, 의무 가입기간이 서민형과 동일(3년)

3) 희망·내일키움 통장(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 계좌) 가입자

- (특징) “서민형 ISA”를 중심으로 한 ISA 가입 증가세 뚜렷

○ 7월말 현재, 전월 대비 늘어난 계좌수(1.7만) 중 95%가 서민형 ISA (1.6만)

### Ⅲ. 향후 계획

❖ ISA가 진정한 국민재산증식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간 **건전한 경쟁유도**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안정성 도모**

① **(건전한 경쟁 유도)** 금융회사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익률 공시시스템 구축**

- 공시수익률 전수점검, 공시담당자 등 전면재교육\*, 내·외부 수익률 점검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시오류 위험 차단**

\* 9.6일 공시기준 설명회 개최, 9.9일 ~ 신규 공시회사 대상 일대일 교육 진행 中

- 이를 위해, 공시수익률 검증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였고(9.8일, 금투협), **9월말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2차 수익률 공시 예정\***

\* 8월말 기준 ISA 가입자 잔고분포 및 유형별 가입현황 자료는 9월 하순에 집계되므로 제2차 수익률 공시 시점에 참고자료로 함께 배포할 예정

② **(국민재산늘리기 기여도 제고)** 국민 재산증식 수단으로서 ISA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ISA 수익성 및 경쟁력 강화 유도**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률 분석 및 결과공개를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차별화된 상품설계, 자산관리 역량 집중 유도
- 세제당국과 ISA 세제혜택 증대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등 **ISA 저변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 지속

③ **(투자자보호 강화)** 판매프로세스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자여건 조성**

- 현재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자체 내부 점검**을 통한 자율시정을 유도·진행 중

\* 4월 중순~5월말, 은행 13개(340개), 증권회사 14개(260개) 총 600개 영업점 대상 실시

- 향후, 금융회사 자체 개선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불완전판매 등 위법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 예정**